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한류의 현재와 한국문화의 나아갈 길〉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일시 | 2024년 12월 18일(수),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 1. 목적

- 민주연구원 내 문화예술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풀 형성
- 미래지향적 문화예술 정책 의제를 연구 개발하여 지방선거 승리와 집권 플랜에 기여
-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융합적인 글로벌 한국 문화예술정책 의제 발굴
- 문화와 경제, 문화와 돌봄, 문화와 교육, 문화와 기술, 문화와 생태 등 다른 정책분야와 함께 통합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

## 2. 기획 의도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사회적 담론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정책 제언의 장 마련
- K-pop, K-cinema, K-drama 등 대중적인 상업 한류뿐만 아니라, 문학, 클래식, 미술, 무용, 국악 등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담론 필요
- 최근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응하고, 문체부의 대폭 예산삭감으로 예술교육, 생활문화, 독서진흥 등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적극 대응
- 인구감소, 노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기술혁명의 시대에 문화예술의 영역이 과거보다 확대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통합적인 문화예술정책 수립 필요
- 민주연구원은 문화예술포럼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선도적 의제 발굴의 계기 마련

3. 포럼 주요 의제(안)

- 민주당 집권을 위한 문화정책(보고서)
- 예술인 기본 권리를 위한 지원정책(예술인 기본권 시리즈)
- 새로운 문명전환의 관점으로 보는 한류 정책
- 문화사회를 위한 국민의 문화향유 정책
- 체육계 혁신정책
- 2천만 관광객 시대 관광정책 혁신
- 문화콘텐츠 G5 실현을 위한 제도혁신 과제
- 미래 콘텐츠 선도적 역할을 위한 콘텐츠 R&D 정책
- 지역의 문화 분권 실현을 위한 혁신과제
- 문화 다양성과 국제교류 정책의 혁신
- OTT시대 방송미디어 정책 전환 과제
- 예술과 인공지능 미래
-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정책 대응
- 창작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정책
-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문화 도시재생 정책
- 디지털 시대 출판미디어 정책
- 예술시장(공연, 미술, 문학출판 등) 글로벌 확산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조직 혁신 정책

4. 운영방향

- 민주연구원 주최 문화예술포럼 년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개최
- 2024년 12월 1회 한강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한국문화의 세계화 관련 토론회 개최
-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연계와 및 협력 방안 마련
- TF팀은 회원제로 운영

5. 행사 개요

- 행사명 :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 주 제 :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한류의 현재와 한국문화의 나아갈 길〉
- 일 시 : 2024년 12월 18일(수),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주관 :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 생중계 : 텔레민주TV 유튜브

6. 진행 순서

시간		순서		비고
~10:00		사전 등록		
10:00~10:10	10분	개회식	국민의례	진행 사회(고영국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장)
			축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재수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강유정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10:10~10:15	05분	좌 장		정희준 교수(전 동아대 체육학과)
10:15~10:35	20분	기조 발제		주제 :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한국문화의 문명 전환 발제 : 이동연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10:35~11:35	60분	지정토론		정길화 원장(동국대 한류문화학술원)
				오창은 교수(중앙대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양현미 교수(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재경 교수(건국대 상허교양대학)/변호사
				원 일 작곡가(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김용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11:35~11:55	20분	질의응답·자유토론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패널 등

## 새로운 문명의 전환, 문화예술포럼을 시작합니다.

2024년 겨울, 한강 작가의 영광스러운 노벨문학상 수상식이 열리고 며칠 후,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전 세계 문화예술계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에 정작 조국에서는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이에 저항하는 국민의 민주적 탄핵가결이라는 역설적인 정치적 혼란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문화는 이러한 극적인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리고 그 사건을 다양한 예술적 표현으로 반영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한국사회를 40년 전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키려 했던 폭력적 비상 계엄에 맞선 국민의 즐거운 저항은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에서 밝혔듯이,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을 돕는 순간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표현을 꽃 피운 민주주의의 현장은 한국문화의 위대한 승리의 저력이자 자양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열과 통제의 시간을 창조와 자율의 감수성으로 전환하는 문화의 시간, 야만과 폭력을 정의로 전환하는 정치의 시간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야만과 폭력의 시간으로 퇴행하면 안 된다는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세상을 희망하는 문명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미래와 문명의 전환을 함께 토론하는 문화예술포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화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예술인의 권리, 국민의 문화적 권리, 한류의 문화적 가치와 잠재성, 생태와 기술 융합을 매개로 한 문화 역량의 강화, 돌봄과 문화, 경제와 문화 등 문화예술포럼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현재를 새로운 문명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열린 토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문화강국을 꿈꾸고, 문화사회를 실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일동



# Contents

##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소개	i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프로그램	iii
창립취지문 : 새로운 문명의 전환 문화예술포럼을 시작합니다	iv

###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viii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x
전재수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xii
강유정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xiv

### 인사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xvi
------------	-----

### 발제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한국 문화의 문명전환	1
이동연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 토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한류의 과제	27
정길화 원장(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	
컴플렉스 없는 한국문학의 미래를 위하여	33
-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문학정책의 방향	
오창은 교수(중앙대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문학평론가)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한국문화의 문명전환’에 대한 토론문	41
양현미 교수(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한류산업의 위험 상존, 기술을 통한 전망	47
이재경 교수(건국대 상허교양대학)/변호사	
근본 있는 한류의 정체성 확립과 아시아적 가치의 문화개념 창조	51
원 일 작곡가(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K-Ballet 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57
김용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한국문화 세계로 가는 길〉 토론회 개최도 환영합니다. 포럼을 준비해주신 민주연구원과 문화예술계 전문가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며,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은 이제 K-POP과 드라마를 넘어 문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창작 환경과 미흡한 저작권 보호 제도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제한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작품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은 문화계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은 즐거움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여는 창조적 동력입니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확산이 필요합니다. 문화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작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포럼을 통해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문화예술인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8.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님과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임오경, 강유정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예술은 K-팝, K-드라마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국악과 같은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과 달리, 문화예술인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되었던 인사들이 재등용되고, 문화 예술 산업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AI 기술 발달과 OTT 등 새로운 플랫폼 등장으로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포럼은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문화 예술이 나아갈 길을 탐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이 단순히 문화산업의 경제적인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열기 위한 문화 예술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저 또한 우리 문화산업의 성장과 문화·예술인 권리 보호 그리고 모든 국민이 삶의 기본권으로서 문화 예술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전재수**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재수입니다.

민주연구원의 문화예술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 문화예술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린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문화적 토양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문화적 기반에 또다시 깊은 상처를 남기며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과거에도 억압 속에서 곳곳이 문화적 자유를 지켜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저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세계를 선도하며 새로운 문화적 연대와 감동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의 발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문명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며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문화정책을 모색하는 이 포럼이, 우리 문화예술의 역할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어질 소중한 의견들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를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이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포럼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12.1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재수



**강유정**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론회 주최를 위해 애써주신 민주연구원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올 겨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불안정한 정국으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위안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역설했듯,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줍니다. 전 세계에 널리 퍼진 한류에 힘입어 세계무대에 한국 문학이 우뚝 서면서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으로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문화 강국으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긴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문화예술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갈지자 행보를 거듭해왔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문체부를 국정 홍보 나팔수 취급하고 블랙리스트로 예술인을 겁박했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정책 방향성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이에 새롭게 발족한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은 문화예술 정책의 중장기적 원칙과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미래지향적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의제 발굴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문화예술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 주신 발제자, 토론자 및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하며,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2.1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 유 정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소식에 온전히 환호하고 자부심을 느끼기엔 시국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빈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나의 소원 중에 “나는 우리나라가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99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21세기엔 지식과 문화가 중요하다. 21세기는 한국의 세기다. 왜냐하면 문화는 한국인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율, 참여, 분권’이라는 기조 아래 창의한국이 지향하는 미래 문화의 상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라는 인용하였습니다.

민주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과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패션, K-뷰티 제품 등 한류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민족의 창의성, 무작위성, 다양성, 감성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수정권에서 반복되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작품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은 문화계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토론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의제와 정책들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정책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포럼을 통해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과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문화예술인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의제들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체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란극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국회일정과 당무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 박찬대 원내대표님, 전재수 국회의원님, 강유정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포럼 성공적인 운영과 다양한 정책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포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패널 분들의 열정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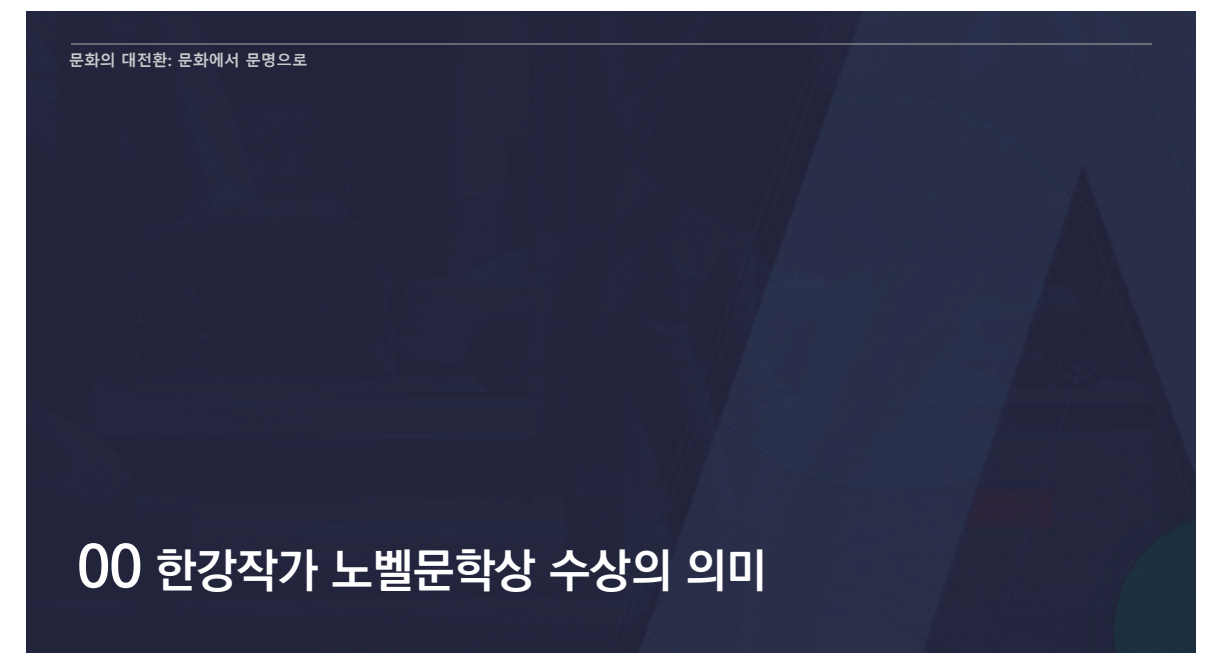
2024.12.18.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한국 문화의 문명전환

이동연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2023

한강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의미

1) 선정 사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2) 총 117차례 121명 수상. 여성작가로서 18번째 수상

3)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옌 이래 12만, 아시아 여성작가로서는 최초 수상

4) 노벨문학상 수상의 시간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의 시간이 오버랩: 문화와 역사의 공존


5) 한강작가의 수상 자체의 의미, 작가의 내적 정체성, 글쓰기-문체의 감수성, 작가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문명적 전환의 시각이 필요

6) 한강 작가의 작품에서 상상하는 문명의 문제들: “역사-인간”, “자연-기술”, “생태-생명”의 새로운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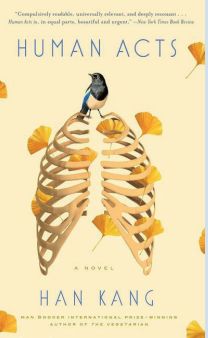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2023

한강




문화와 삶, 인간과 생명에 대한 전환의 상상력: 인간, 생태, 역사, 테크놀로지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2023

한강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의미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독특한 통찰력”(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선정사유, 노벨상 홈페이지)

“한씨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연약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거나 다른 질문을 하거나, 다른 문서를 요청하거나, 살아남은 다른 증인을 인터뷰하기에 충분한, 딱 그만큼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 희미해지면서 죽은 자의 그림자가 벽 위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노벨문학상 시상자, 헬렌 뢰트스웨덴 한림원 종신위원)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의 본성에 대해 질문하는, 이 행성에 깃들인 사람들과 생명체들의 일인칭을 끈질기게 상상하는, 끝끝내 우리를 연결하는 언어를 다루는 문학에는 필연적으로 체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의 반대편에서 있습니다.”(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소감)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2023

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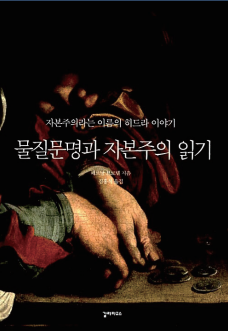
야만에서 문명으로-역사적 트라우마 앞에 “끝끝내 우리를 연결하는”



01 왜 문명적 전환인가?

1) 문명의 이행: 서구에서 아시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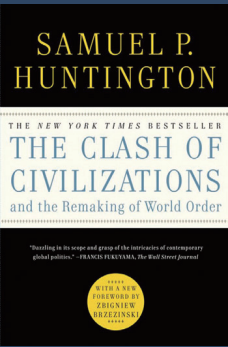
Fernand Braudel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서양 물질문명의 형성

- 1) 자본주의 형성 이전의 지중해의 경제활동과 일상의 삶
- 2) 지중해 권역에서 서유럽으로의 이행은 자본주의 시대의 이행
- 3) 경제문명이 아닌 물질문명(의식주의 일상성)을 통한 서양문명의 변화과정에 주목
-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물질 생활은 거의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느리게 변화해 온 고대사회와 경제의 연장이다”
- 문명: 일상의 삶으로서 하층(물질생활)과 일상을 통제하고 조직하는 상층(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교집합
- “시골없이 어떻게 도시를 이해하며, 물물교환없이 어떻게 화폐를 이해하겠는가?”

Samuel  
Hunting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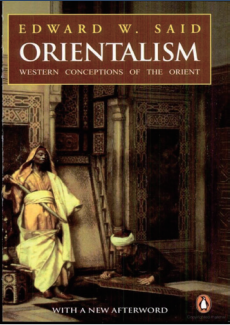
〈문명의 충돌〉(새뮤얼 헌팅턴)

- 1)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에서 말하는 탈냉전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승리론에 대한 반론
- 2) 사회주의 붕괴이후 국제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이념적인 대립에서 문명적인 대립으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기독교 문명 VS 이슬람 문명의 대립)
- 2) 냉전 이후 정치적 이념보다는 언어, 종교, 사회적 가치, 관습 등 문화적 요소들이 지배불복의 대립을 결정
- 3) 이슬람 문명의 위협으로 서양의 기독교 문명의 위기를 의식화 : 이슬람 문명에 대한 편협한 시각
- “더 거대한 충돌, 곧 범지구적으로 벌어지는 문명의 아관성의 “진짜” 충돌에서 종교, 예술, 문학, 철학, 과학, 기술윤리, 인간애를 풍요롭게 발전시킨 세계의 거대한 문명들 역시 단결하거나 갈라설 것이다. 다가오는 세계에서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며, 문명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만이 세계 대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다.”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Edward S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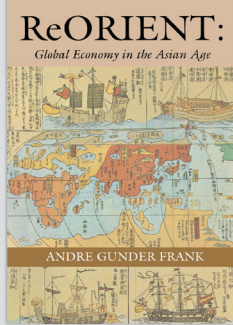
〈오리엔탈리즘〉(에드워드 사이드)

- 1) 오리엔탈리즘: 서양의 시각으로 동양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나 편견이 하나의 고정된 이데올로기로 의식화
- 2) 서양의 문헌 속에서 발견되는 동양 혹은 아시아문화의 문화의 오류와 단순한 지식체계
- 3) 이슬람은 폭력적이고 아시아는 조용하고 정이라는 편견.
- 4) 오리엔탈리즘 안에는 서양의 동양 지배 이데올로기가 개입

• “동양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다만 오리엔탈리스트들의 말과 담론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Andre Gunder Frank




〈리 오리엔트〉(안드레 군더 프랑크)

- 1) 리오리엔트: 유럽 중심의 역사관, 세계관에서 벗어나 동양의 세계관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
- 2)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는 19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럽중심주의적 관점에 의해 기술.
- 3)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사회과학이라는 것 역시 단순히 유럽중심적 발명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
- 4) 마르크스와 베버, 페르낭 브로델, 월러스틴, 새뮤얼 헌팅턴 모두 이 편협한 이데올로기의 한계에 갇혔다.

“역사적 과정 전체 또는 체제 전체의 변용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의 동시성을 탐색하고 연관시키는 시도 자체는 경험적 정보와 이론적 적절성의 미비로 말미암아 사실(史實)에 의해 시공간을 채우지 못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의미 있게 내딛은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나 요즘처럼 전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역사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세대에게는 이것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Homi Bhab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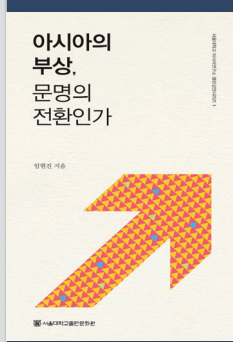
〈문화의 위치〉(호미 바바)

- 1) 식민지 모방(colonial mimicry)은 고정성에 근거하나 그 고정성은 양가적이고 혼종적이다.
- 2) 식민지 모방은 식민 주체의 분열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차이를 생산한다.
- 3) 식민지 모방의 차이는 위협을 생산한다: 동일하지만 아주 동일하지 않은, 다르지만 아주 다르지 않은

• “분열의 담론이란 자신의 연표적 양식에 담긴 합리적, 계몽적 주장을 위반하는 담론을 말한다. 식민지적 권위의 양가성은 반복적으로 모방으로부터 위협으로 전환된다.”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임현진 외



〈아시아의 부상, 문명의 전환인가〉(임현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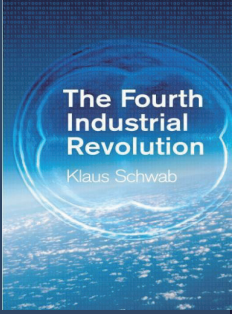
- 1) 21세기에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면서 유럽, 북미 대륙과 더불어 근대 산업 세계의 3대 지주 중 하나
- 2) 1970년대 중반 덩샤오핑과 간디의 만남에서 공문화되었던 '아시아의 세기(Asian Century)'가 마침내 도래
- 3) 서구적 근대에 대한 대안으로 아시아는 인간-환경 친화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기대
- 4) 잠재력 높은 지역공동체의 조건을 갖춘 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협력이 필요
- 5) “새로운 아시아의 도래”, “세계는 바뀌고 있다”, “아시아가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부딪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어디로”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2) 과학기술의 전환: 특이점의 시대로 이행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Klaus Schwab



〈4차산업혁명〉(클라우스 슈밥)

1) 2016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기. 제4차 산업혁명은 규모와 속도, 범위에서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예상되므로, 인류가 마주하게 될 기회와 도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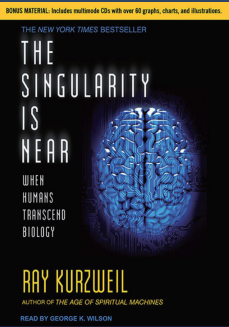
2)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공익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

3) 제4차 산업혁명의 개요와 이 시대의 변화가 불어오는 주요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영역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그리고 그 영향,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잘 수용하고 형성하며, 그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 방안과 해법을 제시.

4) 이 책의 궁극적인 취지는 과학기술결정론이나 경제결정론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양식의 변화(문화적 변화)에 주목.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Ray Kuzweil



〈특이점이 온다〉(레이 커즈와일)

1) 2042년은 특이점의 시간. 인류-기계 문명의 새로운 미래가 도래.

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물학적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미래 인류의 모습을 전망

3) 특이점은 기술이 인간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낳은 시점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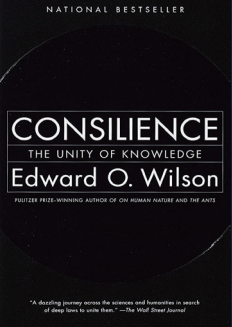
4) 특이점의 시간: 인간과 기계가 하나, 실재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 해체, GNR(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혁명.

5) 인간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은 인공지능의 도래로 문명은 생물학적 인간의 손에서 벗어남.

“우주 공간의 블랙홀이 제 사건의 지평선 쪽으로 물질과 에너지를 끌어당기며 그 패턴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닥쳐올 특이점은 성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생활 양상을 점점 더 빠르게 바꾸고 있다.”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Edward Wilson



〈통섭〉(에드워드 윌슨)

1) '인간 인식/지식의 대통합'.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식들의 통섭

2)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지식 통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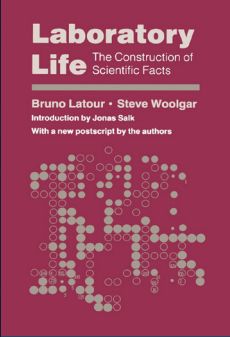
3) 책의 취지는 지식의 대통합이지만, 분석의 원칙은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 사례 예시들은 생물학적 환원론으로 귀결

“예술의 생물학적 기원 가설은 후성 규칙들이 실재하는지, 그리고 그 규칙들이 만들어 내는 원형들이 어떤 것인지에 의존한 하나의 작업가설이다. 이것은 자연과학의 정신 속에서 구성되어왔다. 즉 이 가설은 입증이나 반증이 가능하며 생물학의 다른 부분들과 통섭적이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어떤 식으로 검증되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은 예술 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과 그 밑바탕에 놓인 후성 규칙들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예측하는 것이다.”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Bruno Latour



〈실험실 생활〉(브뤼노 라투르)

- 1) 과학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 결과가 아닌 과정에 주목
- 2) 과학적 사실은 도구 의존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 실험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 사실을 탐구하거나 구성하려는 시도는 불가능.
- 3) 과학 실험의 중심은 과학자(인간)가 아니라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 물질 설비.
- 4) 과학적 사실은 과학자들의 토론이나 합의가 아닌 실험실의 수많은 설비가 산출하는 데이터로 구성
- 5) 과학이란 인간인 과학자와 물질인 실험 도구 간에 벌어지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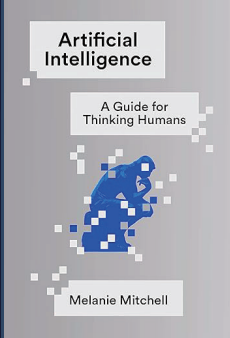
“지금 지원 기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기류맹 자신도 그저 다른 이들의 연구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전략은 프로그램의 비용을 올리는 효과와 규칙의 엄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모두 지녔다. 전체로서의 신경내분비학자에게 훌륭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미국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조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전략은 일본, 체코슬로바키아, 잉글랜드의 경쟁자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버렸다”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3) 지구생태의 전환: 인류세와 지구생명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Melanie Mitch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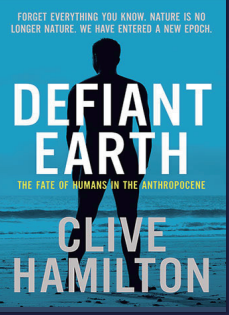


〈인공지능: 인간을 생각하기 위한 가이드〉(멜라인 미첼)

- 1) 인공지능의 시대 가장 긴급한 질문들: 최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최고의 지능을 획득하게 되었나?
- 2) 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작동하며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가?
- 3)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가처럼 활동하기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인간을 초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 4) 인공지능 놀라운 성취와 실제적 과정 사이의 불일치와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
- 5)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비인간의 인간화, 인간노동의 종말과 인공지능적 노동, 역사적 지식 아카이브의 종언, 인공지능의 윤리와 미학의 성찰, 종교적 구도와 정신적 성찰의 위기와 기회, 인공지능과 비물질노동산업과 자본의 변화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Clive Hamil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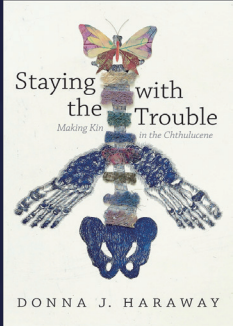
〈인류세: 반항하는 지구〉(클라이브 해밀턴)

- 1) 지구는 홀로세(Holocene)에서 인류세(Anthropocene)로 이행. 인간의 힘이 너무 강력해 지구 시스템 전체의 기능을 교란할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로 이행
- 2) 인류세는 지구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균열을 명명. 탄소 경제에 기초한 산업혁명이 결정적인 계기. 2차세계 대전 이후 자원 낭비. 인류 역사와 지구역사(planet)의 균열
- 3) 인류세는 처음으로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의 공존을 가져왔다. 지구의 미래는 자연적인 과정에 의존할 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의 의지에 의한 결정에 의존한다.
- 4) 이러한 변화는 생태적 관점의 재명명이 아니라 지구시스템이라는 과학적 연구가 새롭게 발견한 어떤 실제 과정의 균열로 봐야 한다.

“지구과학자들이 홀로세가 끝나고 인류세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주된 이유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증가와 그로 인해 지구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연쇄적인 영향 때문이다. 해양산성화, 생물종의 멸종, 질소순환의 혼란 등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힘들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Donna Haraway



〈트러블과 함께하기〉(도나 해러웨이)

- 1) 망가져가는 지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자식이 아닌 친척(Kin)을 만드는 것”
- 2) 친척은 기존의 혈통 개념과는 다른 의미, 인간 종을 넘어, 위기의 생물종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관계를 친척으로 명명.
- 3) 친척은 인간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확장하는 개념.
- 4) 절박한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
- 5)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반려종, 수많은 친척들과 공-산-공-産, 공-생-공-生하는 삶의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과제는 창의적인 연결망 안에서 친척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두터운 현재 안에서 함께 잘 살고 잘 죽는 것을 배우는 실천이다. 우리의 과제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한 장소를 다시 구축할 뿐만 아니라, 트러블을 만들고, 파괴적인 사건들에 강력한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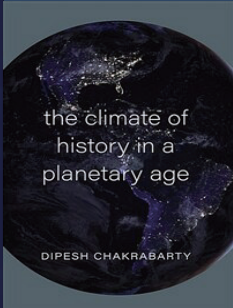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문화의 대전환의 세 가지 의제들:**

- 1) 문명의 이행: 서양에서 아시아로
- 2) 과학기술혁명의 이행: 휴먼에서 포스트 휴먼으로
- 3) 인류세로의 이행: 자연을 정복한 근대적 인간에서 지구생명과 공진화하는 탈근대적 인간으로

2021

Dipesh Chakrabarty



〈행성시대 역사의 기후〉(디페시 차크라바르티)

- 1) 현대 인류가 부딪힌 기후변화 문제를 역사 연구와 결합하는 시도.
- 2) 기후변화는 인류의 역사가 행성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너무도 분명히 제시
- 3) 역사가들은 더는 물질적 현실과 비인간의 세계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진입.
- 4) 인간 중심의 지구화 역사로는 기후변화가 제기하는 인간적-정치적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음.
- 5) 인류 역사와 행성의 길고 깊은 역사라는 불균형적 시간 척도 사이에서 새로운 이해의 방법을 모색
- 6)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성찰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02 문화의 대전환: 문명전환의 비판적 징후로서 한류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 한류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견해




“한류는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인 문화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첸광신, 대만 교통대 교수)

“한류가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K-컬처가 가진 힘은 한국 전통에 이어내려오는 창조적 천재성을 전세계에 보여줌으로써, 가난과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욕망에 기반” (Mark Peterson, 브리검대 교수)

“한류, BTS를 모르고 21세기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Sam Richard, 팬실베니아 주립대 교수)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 한류에 대한 해외 언론의 견해(2010년 후반이후)




“한국이 제조업발전을 위해 일본과 미국 선진기술을 차용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감독 및 제작자들은 수년 동안 미국 할리우드 같은 선진적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문화를 연구해왔다. 여기에 한국적 감각을 더해 자신들만의 것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들은 지리적 장벽을 허문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빛을 발했다. 한국문화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문화강국으로 단숨에 성장한 것이다.” (『뉴욕타임즈』, 2021년 11월 4일자 기사, 「BTS에서 오징어게임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화적 거물이 되었나.」)

“케이팝은 작년에 글로벌 음악차트를 지배했다. 그래서 많은 서양의 아티스트들이 팀업을 이루어 새로운 멋진 콜라보를 만들어보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팝 콜라보는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이미 지드래곤과 씨엘이 2011년부터 서양의 팝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BTS가 2017년 빌보드어워드 시상식에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래, 케이팝 가수들과의 콜라보는 서양 아티스트들의 재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BBC, 「케이팝: BTS, 블랙핑크, 엑소-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음직한 톱 서양-한국 음악의 콜라보레이션」, 2019년 7월 25일자 보도)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기초의 양상

### 한류에 대한 해외 언론의 견해(2010년 초반)




“미국의 10대 팝이 최고조에 있을 때조차도 결코 이만큼 생산적이지는 않았다. 한국 팝의 줄임말인 케이팝은 참여하는 뮤지션들이나 이들의 스타일이나 모두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환경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어린 멤버들임에도 아주 노련한 활동을 보여주고, 젊은 음악을 만들어 낸다.”(『뉴욕타임즈』 2011년 10월 24일자).

6월 10일, 11일 만사천명의 케이팝 팬들은 파리 제니트 극장에서 '샤이니', 'f(x)', '소녀시대'가 만들어 놓은 리드미컬한 멜로디의 사운드에 매료되었다. 이들 보이그룹, 걸그룹들은 케이팝을 통해 국가의 열정적이고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재고하길 원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열성적인 도움에 힘입어 음악을 수출 상품으로 만들려는 프로덕션 회사들이 상상해낸 작품들이다(『르몽드』, 2011년 9월 11일자)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음악 수출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미지와 경제 효과 때문에 고무되어 있다. 그러나 케이팝의 가장 성공적인 스토리는 소위 '노예 계약'을 등에 업고 이루어진 것인데, 노예 계약이란 연습생 출신 스타들을 작은 경제적 보상만으로 장기간 독점적 계약으로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BBC』, 2011년 6월 14일자 보도)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 한류에 대한 해외 언론의 견해




“우리는 이제 모두 K-팬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한류는 이미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기획해온 결과물이다” (『THE TIMES』)

“한국 음식, 패션, 음악, 한국어를 이제 영국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를 보든, BTS와 같은 K-팝을 들든, 저녁 식사 때 김치 한 쪽을 곁들이든 이미 한국 문화를 접한 것이다”(『Daily Mail』)

“한국 미디어 콘텐츠가 당신의 취향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울에 기반을 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이제는 한류 불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놀라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즐기면서 그 모든 효과에 대해 고민해 볼 때인지도 모른다”(『South China Morning Post』)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21세기  
문명이행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문화 한류



문화한류의 위상과 도전

쟁점	내용
문화 키워드	BTS, 블랙핑크, 기생충, 미나리, 리니지, 이남치,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아파트, 조성진, 손열음, 임지영, 김기민, 박세은, 임윤찬, 한강
차별화된 경쟁력	온라인 디지털 환경,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문화 에너지
선도적 역할	아시아 문화의 거점, 디지털 글로벌 문화의 플랫폼, 대안문화 흐름의 문화연대와 협력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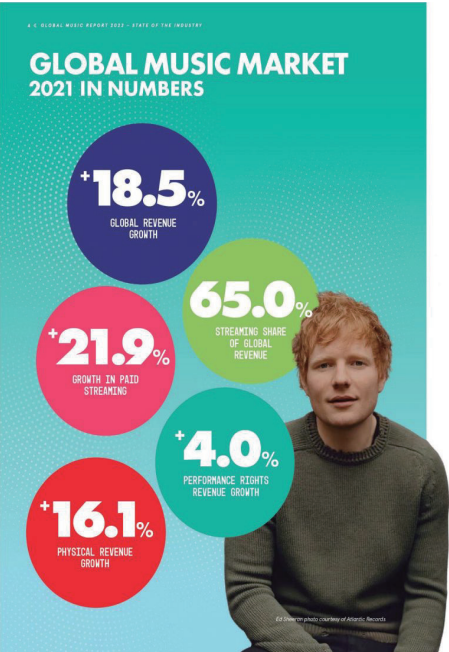
✓ 2020년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수상, BTS 빌보드 뮤직어워드 3관왕 아메리칸뮤직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 등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계의 리더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열악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은 역대 최고 흥행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연한 나라이다.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 파리의 극장들이 문을 닫은 사이에 서울은 <노블담 드 파리> 뮤지컬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연하기도 했다. 최근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선풍적인 인기

✓ 한류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쇼팽 콩쿨 우승,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쾨엘리자베스 콩쿨 우승, 피아니스트 임윤찬 반클라이번 콩쿨 우승,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예술한류라 정의할 수 있다.

✓ 문화한류는 21세기 문명의 전환에 있어서 대안문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문화한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과 유럽 중심의 문화트렌드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며, 안전한 방역과 탁월한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한국의 문화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문화트렌드의 아이콘: 케이팝을 어떻게 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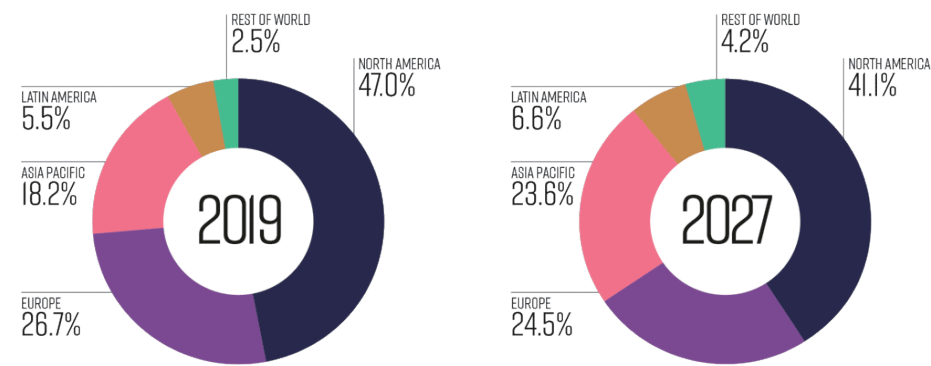


- 1) 전년대비 글로벌시장 전체 수익 18.5% 성장
- 2) 글로벌 시장 수익의 65%가 스트리밍 공유서비스
- 3) 저작권 지급 스트리밍 시장 21.9% 성장
- 4) 공연저작권 수익 4.0% 성장
- 5) 피지컬 음반 수익 16.1% 성장



최근 음악산업의 동향과 주요 정책과제

글로벌 뮤직 스트리밍 권역별 수익 점유율(2019-2027)



35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2) 엔데믹 시대 확산되는 K-pop 글로벌 콘서트: BTS LA투어, 블랙핑크 월드투어 ‘BORN PINK’ : 26개 도시, 36회 공연 150만명 관객, TWICE 미국투어, ATEEZ 월드투어. 케이팝 그룹들 세계적 뮤직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활동(Coachella), 로제의 <아파트> 열풍



37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기준 한국콘텐츠 산업 규모는 136조 3,559억 원으로 추정 전년대비 6.3% 증가. 이 중 음악산업의 2021년 연간 기준 매출액 규모 추정치는 6조 356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4.8% 증가

1) K-pop 그룹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산: BTS, 블랙핑크 월드투어, 뉴진스, 르세라핌, 트레저 등 4세대 아이돌의 선전. 대형 연예기획사 외에 중소 기획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KQ엔터(에이티즈), MLD 엔터(모모랜드))



36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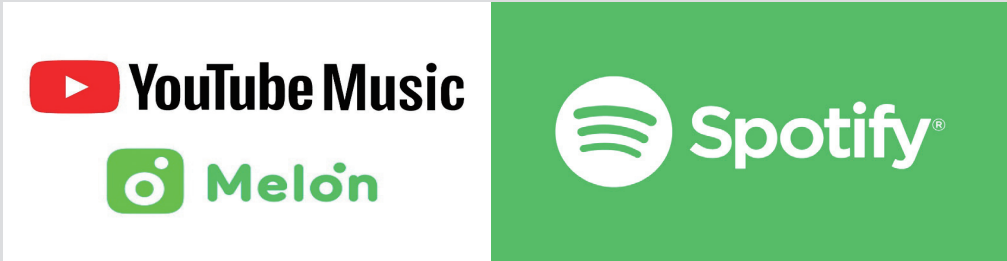
앨범 판매량 증가: 2022년 상반기 음반판매량은 3,495만장으로 전년대비 34.6% 상승 (BTS, NCT, SEVENTEEN, TXT 등)



38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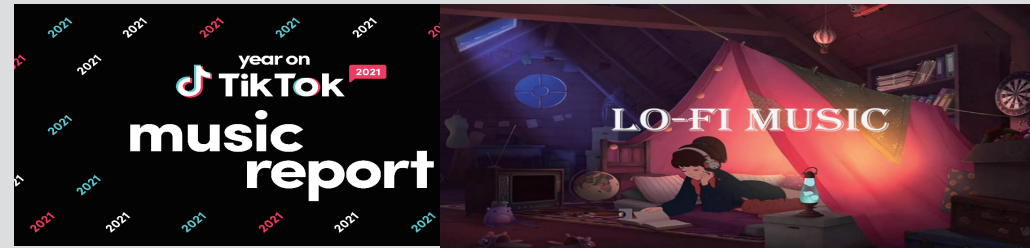
4) 음원 플랫폼 시장의 다변화: 2022년 6월 시장 조사에 따르면, 음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들은 플랫폼은 '멜론' 으로 한달 사용자가 649만명, 2위는 유튜브 뮤직으로 586만명으로 집계 유튜브뮤직 사용자 수가 전월 대비 2배로 급증



39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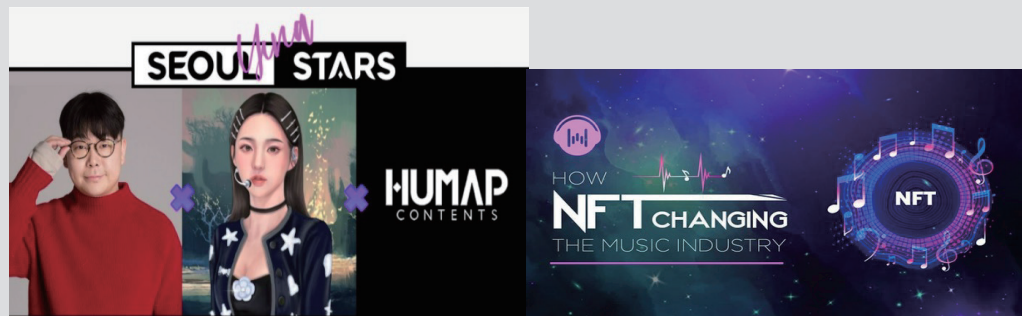
6) MZ 세대의 새로운 음악이용형태: SHORT FORM 소비의 증가(엔하이픈, 뉴진스 등), LP를 소비하는 MZ세대: 2022년은 전년도 대비 LP 제작이 2.5배 증가, 로파이니(Lo-Fi) 음악의 확산(아날로그적 감성)  
 \*\*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카카오+SM현경영진 VS 이수만+하이브의 경영권 분쟁)



41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5)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음악시장의 영역이 확대:  
 휴맵콘텐츠가 만든 가상아이돌 '유나' 메타버스 콘서트 개최. NFT 산업에 본격 진출 (YG엔터, FNC 엔터 NFT 시장 진출)




40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 03 문화의 대전환: 차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의 종다양성 시대로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의 대전환**



**문화의 대전환**

전환의 내용	문제의식
인식의 전환	문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양식의 총체이다. 문화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가치의 전환	문화의 가치는 돈과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한 시대 국가와 개인 그리고 사회의 의식과 생활수준을 결정한다. 문화의 교육적, 경제적, 생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시대의 전환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 창작과 향유, 창조와 기술의 새로운 융합을 위한 국가문화정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내용**

- ✓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인들에게 큰 고통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직장을 잃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세계 시민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집단 우울증에 빠져있다.
- ✓ 코로나19 상황에서 극장, 미술관,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화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가 안전보다 우선할 순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전이 문화를 지배할 수는 없다.
- ✓ 그 이유는 문화는 인류와 인간의 근본이고, 지금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일상을 위로할 수 있고, 집단 우울증에 빠진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창조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 그러한 문화적 가치와 역할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을 요구한다.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는 문화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의 대전환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문화의 전환: 차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 종다양성의 시대로**

**문화의 대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통섭**

- 1) 문화와 아시아: 탈냉전시대 아시아 문화의 연대와 협력(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과의 문화교류와 협력, 남북문화협력)
- 2) 문화와 경제: 콘텐츠 R&D, 문화경제 GDP 확대, Contents Diversity
- 3) 문화와 돌봄: 노령화 시대 문화 돌봄(생활예술), 정신건강과 문화치유, 생태주기별 국민 문화생활여가 확대(국민의료비 절감)
- 4) 문화와 생태: 기후위기 시대 문화의 대안(재생에너지 활용, 공연예술의 리사이클링 플랜, 일회용품 배제하는 생태적 페스티벌, 지구환경 생태위기를 표현하는 예술창작의 활성화)
- 5) 문화와 테크놀로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술창작의 새로운 가능성 탐색. AI, Hologram, Robotics, Bio-tech, Data Arts, 디지털 저작권의 창작자 권리
- 6) 문화와 교육: 예술교육의 보편적 실현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술교육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문화의 전환: 차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 종다양성의 시대로**

**문화의 대전환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 구상**

- 1) 아시아문명의 헤게모니: 한류, 볼리우드(인도), 이슬람 문화열풍, 포스트중동(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동남아시아 팝문화의 부상.
- 2) 과학기술혁명 (AI, Robotics, IOT, Metaverse) 으로 인한 인간 없는 테크노 컬처&아트의 부상
- 3) 기후위기, 인류세 시대의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지구생명권과 공진화하는 문화형성
- 4) 대안적 글로벌 문화로서 한류: 문화자본과 문화민족주의 논리를 넘어서는 상상: 미국문화의 아류인 “문화적 미국화”가 아닌 차이를 생산하는 “문화다양성”

**\*\* 문화의 대전환이란 “인간중심-서양중심-자본중심” 문화에서 “지구생명-권역문화-가치중심”의 문화적 종다양성의 통합적인 구상이라는 점에서 문명사적 전환으로 인식**

문화의 대전환: 문화에서 문명으로

**문화의 전환: 차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 종다양성의 시대로**

**민주연구원  
〈문화예술포럼〉  
:문화의 대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아젠다**

- 민주당 집권을 위한 문화정책(보고서)
- 예술인 기본 권리를 위한 지원정책(예술인 기본권 시리즈)
- 새로운 문명전환의 관점으로 보는 한류 정책
- 문화사회를 위한 국민의 문화향유 정책
- 체육계 혁신정책
- 2천만 관광객 시대 관광정책 혁신
- 문화콘텐츠 G5 실현을 위한 제도혁신 과제
- 미래 콘텐츠 선도적 역할을 위한 콘텐츠 R&D 정책
- 지역의 문화 분권 실현을 위한 혁신과제
- 문화 다양성과 국제교류 정책의 혁신
- OTT시대 방송미디어 정책 전환 과제
- 예술과 인공지능 미래
-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정책 대응
- 창작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정책
-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문화 도시재생 정책
- 디지털 시대 출판미디어 정책
- 예술시장(공연, 미술, 문학출판 등) 글로벌 확산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조직 혁신 정책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한류의 과제

정길화 원장 동국대 한류문화학술원

## 토론문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한류의 과제

정길화 원장(동국대 한류문화학술원)

## 1.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vs '내란과 탄핵'의 한국

2024년 노벨문학상이 한국의 한강 작가에게 주어진다는 소식은 지난 10월 10일에 발표되었다. 이후 달포 가량 한국에는 한강 작가의 열풍이 불었다. '원어'로 된 수상 작품 백만권이 팔렸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동안 올림픽 금메달을 필두로, 노벨평화상, 칸느영화제,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 빌보드상, 풀리처상, 토니상 등 언론문화예술계의 거의 모든 상을 한국 작가 또는 한국계 작가가 석권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도전으로 여겨졌던 것이 노벨문학상이다. 한강 작가가 이 상을 수상함으로써 한류 또는 K-컬처의 절정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굳이 질시와 폄하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노벨상 수상일은 12월 10일. 스웨덴 한림원이 주최하는 공식 일정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로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작가의 소장품(찾잔) 기증에서 시작해 기자회견, 강연, 시상식, 만찬 등의 순서가 들어 있었다.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그 시점에 난데없는 급보가 타전되었다. 주지하는 대로 12월 3일과 4일 심야의 '(실패한) 비상계엄'이 그것이다. 온 국민들을 '계엄 트라우마'에 빠뜨린 이 사건은 내란 - 국회의 계엄 해제 - 두 번 만에 가결된 탄핵소추로 이어져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이동연 발제자는 원고 준비 막판에 터졌을 이 사건으로 늦게까지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발제문에서 이를 '한강 작가의 수상 시간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의 시간이 오버랩되었다'고 정리했다. 언즉시야(言則是也), 내란 사태는 좀비의 악몽처럼 왔다. 비상계엄만 아니었다면



한국인들은 스웨덴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장면을 라이브로 보면서 즐겼을 것인데 당장 박두한 사태로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다. 6일 기자회견, 7일 수상 기념 강연, 10일 시상식에서의 소감 등 한강 작가에게는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3차례 정도 주어졌다. 세계는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저자의 육성을 듣고 싶어 했고 한강 작가 역시 이 현안을 회피하지 않았다.

“바라건대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론을 막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6일 기자회견)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7일 수상 기념 강연)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의 반대편에 서 있다. 폭력의 반대편인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문학을 위한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10일 시상식 수상 소감)

마지막에 나온 수상 소감은 미리 발표된 내용인 “이 상이 주는 의미를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와 달리 현장에서 “폭력의 반대편인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K-리터러치’는 끝까지 사람들의 긴장을 늦추게 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적 회복력’을 극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었다. K-컬처는 파란만장한 한국 역사와 사회의 소산물이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역설적인 한국 문학의 풍요로움’ 덕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것은 “‘식민지-전쟁-분단-냉전-군사독재-압축성장-민주화-극한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관통한 완강한 가부장주의’라는, 근대 세계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역경을 다 거쳐온 한국 현대사가 만들어낸 역설적인, 문학적 풍요이기 때문이다.”(문학평론가 김명인). 스웨덴 현지에서 나온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은 가히 실시간으로 내란-탄핵정국을 반영했다. 한국 사회는 경제발전도 압축 성장을 하더니 역사적 단계도 압축적이다. 4.3과 5.18이 한강 작가를 통해 구현되었고, 미구에 작금의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도 K-콘텐츠의 소재가 될 것이다.

## 2.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과 한류

이제 노벨문학상 때문에 이민 안 가도 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당장 떠오른 것은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의 한 장면이다. 셀린 송 연출, 그레타 리, 유태오 주연의 2023년작 미국 영화다. 유년 시절 한국에서 알게 된 노라와 해성이 노라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며 헤어졌다가, 20여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재회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 영화의 앞 부분에서 문나영(노라, 그레타 리)은 노벨문학상을 타기 위해(?) 12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왜 이민을 가느냐?”는 한국 급우들의 말에 작가가 꿈인 나영은 간단히 답한다. “한국사람들은 노벨문학상 못타”...

12세 나영이가 한 이 말에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며 한국어로 작품 활동을 하다가는 어느 천년에 노벨문학상씩이나 받을 수 있겠냐’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그럴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은 로컬”이라며 ‘저 포도는 신 포도야!’라고 비수를 날린 심정과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한국인은 굳이 노벨문학상을 받기 위해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아도 된다. 한강 작가가 그것을 시현했다. 한국 작가가 한국어로 작품을 발표해도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로 된 한국문학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한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다. 물론 번역한 텍스트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겠으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모름지기 한류의 시작과 종착지는 한국어다. 드라마 영화 K-팝 웹툰 게임... K-콘텐츠의 원천 소스는 대부분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메이드인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위해, 또는 K-팝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수용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3년간(2021~2024)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한류 관련 행사를 할 때 한국어 콘텐츠를 직접 향유하는 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어 보급과 한국어 콘텐츠 보급 시스템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작금 번역의 중요성을 말하고들 있다. 데보라 스미스를 비롯해 국내외 한국문학 번역자의 선구적인 노력과 한국문학번역원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어 텍스트의 번역 사업은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 대상 작가나 장르도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한국어 원전 텍스트가 널리 수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해외의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넘어 ‘한국어한국문학과’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한강 작가에서 시작해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읽히고 연구될 것이다.

K-컬처는 먼 길을 돌고돌아 마침내 한국어 콘텐츠, 즉 K-Literature로 왔다. 그동안 한류

1.0은 드라마, 2.0은 K-팝, 그리고 K-푸드에 더하여 게임과 웹툰을 합해서 3.0 이라고 하는 등 이른바 ‘버전불이기’로 한류를 구분하고 명명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새로운 변곡점이 될 만하다. 다시 말해 한강 작가 이전과 이후의 K-컬처는 양상을 달리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발제자가 강조하는 ‘문화의 대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아젠다’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문명전환의 관점으로 보는 한류 정책’ 그리고 ‘미래 콘텐츠 선도적 역할을 위한 콘텐츠 R&D 정책’, ‘문화 다양성과 국제교류 정책의 혁신’, ‘예술시장(공연, 미술, 문학출판 등) 글로벌 확산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조직 혁신 정책’ 등에 주목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정도라면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모름지기 기능적인 개량보다는 철학이 중요하다. 발제자는 이를 한국문화의 문명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류산업기본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법안에 ‘한류’가 들어간 최초의 법령이라고 한다. 내용을 보면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법 제정 이유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발제자가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조직 혁신 정책’을 기대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경우 통산 21년째를 맞이하고, 진흥원으로 이름이 변경된 이후로는 6년째인데 조직의 소속 계선과 업무분장 면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정도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목하 한강 작가의 수상을 계기로 한류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컴플렉스 없는 한국문학의 미래를 위하여

## —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문학정책의 방향

오창은 교수 중앙대대학원 문화연구학과

토론문

# 콤플렉스 없는 한국문학의 미래를 위하여

## –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문학정책의 방향

오창은 교수(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 1.

이동연 선생님의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한국 문화의 문명 전환」 잘 보았습니다. 문명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논의가 흥미롭습니다. ‘차이와 공존’에 기반한 거시적 접근은, 삶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을 제안합니다. 저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문학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려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지원정책’에서 빠지지 않은 항목이 ‘한국문학예술의 세계화 지원’이었습니다. “K-컬처의 동력으로서 세계인이 함께 읽는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문학진흥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국제문학상 수상 수가 2003년부터 2012년에는 11회였는데, 2013년부터 2022년에는 28회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이 한국문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문학의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노벨문학상’과 같은 권위있는 상 수상이 필요하다는 암묵적 정책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한국문학에서는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그 목표를



일거에 이뤄내고 말았으니까요. 벼락같은 수상 소식이었고, 한국사회 전체를 놀라게 한 천둥 소리였습니다. 아시아 작가가 수상하리라는 기대는 있었으나, 그 수상자가 한강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문학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써, 한국문학은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가 수상했고, 중국은 모옌이 수상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한강이 최초의 아시아 여성작가로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한강은 이제 세계인이 함께 읽는 한국문학의 자리를 마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콤플렉스 없이 문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한강이 조성해 주었다는 것이, 한국에서 문학하는 다른 작가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합니다. 콤플렉스는 마음의 상처이기에, 실제 현실을 왜곡되게 합니다. 외국 작가와 대면했을 때, 자신의 언어권 문학을 왜소하게 생각하는 태도부터, 작가 자신의 문학적 역량에 대한 위축된 태도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 한강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졌습니다. 1970년생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지금의 문학적 성과보다 더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젊습니다. 그는 미래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정신적 역량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앞으로 써낼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적 길을 만들어나가는 개척 작업이 될 것입니다. 먼 미래에 그가 멈추는 순간까지, 그의 작업은 세계 독자의 눈길을 계속 잡아끌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한국어로, 그 작업을 이어가리라는 생각을 하면, 이는 분명 한국문학의 축복입니다.

또 다른 ‘재앙 같은 축복’도 있습니다. 재앙의 뭍은 한국의 주류사회의 것이고, 축복의 뭍은 한국의 소수자들의 것입니다. 오에 겐자부로가 일본사회를 비판했던 것처럼, 한강도 한국사회의 주류적 관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국가 폭력에 대해,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해,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를 비판하는 소설을 써 왔습니다. 생활인들은 놓치기 쉬운 구조적 폭력을, 작가의 예민한 눈으로 포착해 질문하고, 형상화해 왔습니다. 그런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라는 상징권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문화적 표준을 조정하게 할 것이고, 그의 실천 행동은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그가 오에 겐자부로보다 더 급진적이고, 쿤터 그라스보다 더 실천적이며, 스페트라나 알렉시예비치보다 더 근본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수자들에게는 든든한 후견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2.

국제 교류의 측면에서, 정책은 과연 예술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K-Arts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K-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서울 아트 마켓을 개최하고, 해외 아트 페어에 참가하는 한국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K-콘텐츠의 긍정적 성과가 공연예술과 미술, 무용 등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지원 양상입니다.

문제는 국가의 정책적 문화예술지원이다 보니, 국가주의의 그늘을 거뒀을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예술의 ‘창의성, 다양성, 혁신성’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 분야, 무용분야, 국제 콩쿠르 분야에서 국제적 수상의 성과를냄으로써 국가 브랜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부가가치 산출도 계산됩니다. “영화 한편이 자동차 4만대 수출보다 낫다”라는 말이 인용되면서, 문화예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려 하기도 합니다.

국가주의적 색채가 짙으면, 짙을수록 문학예술의 국제적 교류는 축소되고 맙니다. 전지구적으로 감수성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화예술분야의 국제 교류는 ‘평등주의적, 수평적 감수성에 기반한 정책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인들을 한국으로 진입시켜 문화예술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 지원을 국적주의에 입각해 자국민에게만 한정하는 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예술가들에게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외국 작가와 연구자들을 불러들여 작업실을 제공하고 물질적 지원을 한 이후, 그 작가가 귀국하여 독일에 대한 예술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다음으로, 단기 지원 체계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프램개발도 필요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숨은 공로자는 번역자입니다. 한강 문학의 번역자인 테보라 스미스와 같은 존재가 탄생하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괄효환 전 한국문학번역원장은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를 3세대로 구분했습니다. 제1세대는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로, 이 때는 외국문학을 전공한 한국인 교수들이 번역을 주도했습니다. 제2세대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로,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과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의 공동 번역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3세대에 이르러서는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전문적인 번역 훈련을 받음으로써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201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시간을 견뎌낸 이후에야 문화간의 교류가 가능해지고, 그 문화적 교류에 기반해 예술적 성취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의 접근도 시간을 건디는 구체적 프로그램의 실행이 중요합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일차적으로는 그의 문학적 개성의 성취입니다. 더불어 한국문학의

풀뿌리에 기반한 문학생태계의 건강성도 나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강의 문학적 작업을 가능하게 했던 독자들의 응원과 지지, 문학출판 인프라를 유지했던 출판사들, 그리고 문학사적 전통 등이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입니다. 집중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풀뿌리의 힘에 기반한 성과이기에 벼락처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한국사회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에서 견실히 다져진 문학예술 지원 정책이, 어느 순간 외부적 평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 3.

한강 작가는 지난 12월 7일, 스톡홀름에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 ‘빛과 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한강은 문학적 질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 다음 대목이 유독 제 마음에 뽐족한 울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던 20대 중반에 한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문학 뿐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 직면하곤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이 질문은, 현재 글을 쓰는 ‘나’가 인간 존재에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텍스트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현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글을 쓰는 작업은 무력함을 감내하면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현재와 과거,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한강은 1980년 5월 당시 도청 앞 YMCA에 남아 있다 살해 당한 젊은 야학교사의 박용준의 기록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꿨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현재의 글을 쓰는 ‘나’에서, 쓰여진 글 속의 과거가 다시 ‘나’와 현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쓰는 존재와 쓰여진 글의 관계에 대한 역전적 사유가 이 질문에 스며있습니다. 작가는 쓰는 순간에 집중하면,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히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이 쓴 글을 경유하여 세계를 다시 대면하게 되면, 내가 쓰는 글이 어떤 질문을 답아야 하는가를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한국사회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정치현실에서 1980년 5월 광주를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 희생당한 사람들은, 집단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 유험사태를

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한강은 스웨덴에서 귀국을 하지 못하고 망명객으로 떠돌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1980년 광주의 핏자국이 2024년 한국사회를 살렸지만,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문학적 성취도 한국사회를 살리는데 기여를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한국문화의 문명전환’에 대한 토론문

양현미 교수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토론문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한국문화의 문명전환’에 대한 토론문

양현미 교수(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 문화의 전환, 문화종다양성 시대 공감

- 서구에서 아시아로, 과학기술의 전환, 기후위기, 한류 확산으로 인간-서양-자본중심에서 지구생명-권역문화-가치중심으로 변화
- 문화와 아시아, 문화와 경제, 문화와 돌봄, 문화와 생태, 문화와 테크놀로지, 문화와 교육 등 통섭정책 제안
- 문화의 대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아젠다 제시하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도 전환의 주요 변수로 추가

<표 1> 문화의 대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아젠다 재분류

범주	아젠다
문화와 시민	문화사회를 위한 국민의 문화향유 정책 문화와 돌봄 : 고령화 문화돌봄, 정신건강과 문화치유 등 문화와 교육 :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교육
문화와 창조	예술인 기본권리를 위한 지원정책 예술과 인공지능 미래 체육계 혁신정책



문화와 사회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문화도시재생 정책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혁신과제
문화와 경제	문화콘텐츠 G5 실현을 위한 제도혁신 과제 미래 콘텐츠 선도적 역할 위한 콘텐츠 R&D 정책 OTT 시대 방송미디어 정책 전환 과제 창작자 보호 위한 디지털 저작권 정책 2천만 관광객 시대 관광정책 혁신
문화와 세계	문화와 아시아 : 아시아문화의 연대와 협력 새로운 문명전환의 관점으로 보는 한류정책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정책의 혁신 예술시장 글로벌 확산정책
문화와 생태	기후위기시대 문화예술정책 대응
문화와 거버넌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조직혁신 정책

## □ 민주주의는 한류의 토양, 표현의 자유 재확인

- 한류의 동력인 콘텐츠산업과 예술은 정부 수립 후에도 오랜 기간 검열의 대상
- 1987년 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 보장된 것은 1996년 영화검열에 대한 위헌판결을 필두로 이어진 법적, 제도적 변화 덕분
- 한류라는 용어가 1997년에 등장한 것은 한류가 민주주의의 진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위헌적 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과 예술인 기본권 침해, 한류의 근간 와해
- 한류의 상징인 응원봉과 케이팝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빛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가 한류의 기반이기 때문임

## □ 문화민주주의에서 문화·생태민주주의로

- 모두를 위한 문화, 모두에 의한 문화에 더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 포함
- 문화민주주의의 원칙인 문화다양성 및 문화권의 보호와 증진, 공동체 문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 문화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문화자원과 지원에 대

한 공평하고 공정한 접근 보장 관점에서 정책 혁신

- 생태민주주의 관점을 통합하여 문화정책 수립시 문화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

## □ 추가적인 아젠다 제안

- (헌법 개정과 문화권) 문화권을 사회권에서 독립시켜 별도 기본권으로 명시, 문화민주주의가 기본 운영원리로 담겨야
- (문화 거버넌스) 정부 대변인 역할인 국정홍보 기능의 문화부 존치 재검토,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거버넌스 혁신 시급
- (국가유산 정책) 기후 위기는 국가유산 보호에 직접적 위협, 예방 및 보존 위한 정책 대응 강화, 과학기술 활용한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의 스마트화, 일본 세계유산의 역사 왜곡 강력 대응 필요
- (문화 테크놀로지) 문화 분야별 테크놀로지 접근성 격차, 이를 감안한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확대, 교육 및 재교육 지원, 부처간 협력 필요
- (문화 ODA와 문화다양성 교육) 세계 진출 전략 위주에서 연대와 협력 역할과 문화ODA 확대, 우리 안의 문화포용성 제고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필요

# 한류산업의 위험 상존, 기술을 통한 전망

이재경 교수 건국대 상허교양대학/변호사

## 토론문

한류산업의 위험 상존,  
기술을 통한 전망

이재경 교수(건국대 상허교양대학)/변호사

## ○ 전속계약 분쟁 등 한류산업의 위험

K-팝의 태동기를 이끈 동방신기, 카라 전속계약 분쟁 사태가 2000년대 후반에 불거질 무렵만 해도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산업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하여 선진화되는 통과 의례라고 애써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2020년대 접어들어서도 3세대 대표 그룹 엑소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것을 비롯하여 최근 이승기의 음원 수익 정산 분쟁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연예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민희진 뉴진스 하이브 전속계약 사태가 대중음악산업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024년 현재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속계약 전쟁 중이다.

동방신기, 엑소 사건의 경우에는 지나친 장기간의 계약 기간과 정산의 불투명, 불공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진스 사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하다. 민희진의 경영권 찬탈 시비를 비롯하여 국회 환노위에 뉴진스 멤버인 하니가 출석할 정도로 근로자의 권리 차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예상된다.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청운의 꿈을 꾸면서 방구석 연습생 신분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톱스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입지 변화’에 따른 분쟁의 발생은 어쩌면 예정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아이돌로 막 데뷔하려는 연습생 단계에서는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기획사가 제시하는 12~13년 장기 계약이나 각종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연습생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마어마한 팬덤을

확보하여 정상급 스타가 되면 갑을 관계가 바뀌면서 이런 저런 분쟁이 크다. 다른 기획사 또는 1인회사로서 개인활동을 하더라도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아티스트는 뼈를 깎는 세월 끝에 성공을 거둔 만큼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반면, 기획사는 초기에 각종 위험을 모두 감수하면서 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성공 이후에 비로소 그 성과 배분을 통하여 기획사의 노력을 보상받는 셈이다.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서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보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상이몽 이전투구 끝에 쓰라린 상처를 남기면서 결별의 수순을 밟게 된다. 3세대 K-팝 아이돌에서도 전속계약 분쟁이 반복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꺼려하게 만들거나 아이돌의 성장을 방해하므로 대중음악산업의 존립을 흔들게 된다. 아울러, 잦은 분쟁은 K-팝을 포함하여 한류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기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 자체적인 정화 움직임이 필요하다.

#### ○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한류의 성장 가능성

대한민국의 국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킨 BTS의 세계적 성공은 유튜브 등 IT인프라의 발전 및 팬덤 소통의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코로나의 비대면 시스템을 거치면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비롯하여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코리아 브랜드에 대한 고무적인 공감대를 각인하는 기회였다. 이러한 기술발전과 환경 변화와 흐름을 읽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한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의 한류를 이끌었던 것이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및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은 IT와 환경 변화에 적응한 코리아 브랜드 및 국격의 향상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술적인 중흥기에 접어들어 AI를 포함하여 더 복잡다기한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IT 강국으로서 이루어낸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및 가상세계에서의 다양한 콘텐츠,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이나 마케팅, 3D프린팅이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예술 아이템의 개발 등 앞으로도 K-콘텐츠가 진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테크놀로지와 함께 한류 3.0은 새롭게 시작한다.

# 근본 있는 한류의 정체성 확립과 아시아적 가치의 문화개념 창조

원 일 작곡가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 토론문

# 근본 있는 한류의 정체성 확립과 아시아적 가치의 문화개념 창조

원 일 작곡가(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 근본 있는 한류의 정체성 확립과 아시아적 가치의 문화개념 창조

12월 14일 박찬대 의원의 2차 탄핵안 제안 설명서에서 인용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쓸 당시의 질문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까?”는 매우 시의 적절한 인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술가의 생각과 작품은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며 문화의 아이콘이자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사회와의 소통을 넘어 진정한 작품은 전 세계 인류와 공감하게 된다는 점을 한강 작가의 예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문화의 르네상스를 일구어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문화 정책의 큰 방향은 잘 알려져있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제 21세기 기술과 문화콘텐츠의 무한 경쟁 시대에 한류의 방향과 미래를 생각해보며 동시에 어지러운 정도로 역동적 민주주의를 생성해가는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의 역사적 사건과 극복의 파노라마를 동시에 그려봅니다. 과거를 통해 배울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문화 정책과 한류의 미래를 긍정하는 힘이 과거를 돌아보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 역사적 문화 예술 전통의 지혜를 지닌 근본있는 한류

근대 조선후기 동학운동에서 제시된 철학적 이슈들이 왜 세계적, 문화적, 정신적 혁명이었는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왜 그것인 인간 행동에 문제를 제기한 세계사적



정신문명의 개벽인지 젊은 이들이 많이 알아야하고 이것이 한류에 내재한 무의식이며 앞으로 근본적인 개념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점

한국의 격동과 역동의 역사를 통해 한국인들에게는 COM+PASSION=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내면의 영성이 깨어나 연대하는 능력이 축적되어 왔다. 한류의 저변에는 역사문화의 힘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술과 생태와 인간을 통합하는 능력을 문화콘텐츠를 통해 창조하고 있고 있것은 세계 문명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자본과 경제중심의 논리에서 한류가 지나치게 대중적인 콘텐츠에만 몰두하다보면 깊은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온 인문 철학적 깊이를 저버리고 개성과 고유성을 잃어버린 채 표피적 대중성에 잠식되거나 희석되어버릴 수도 있을것이다. 그렇기에 ‘예술한류’란 무엇일 수 있을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적 인문 철학 다지기를 통한 정책수립

한국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피어난 현재의 ‘한류’는 안으로는 한국의 인문학(한국학)에 철학적 뿌리를 둔 비전과 철학적 통찰을 담아낸 다양한 저술 작업이 필요하며 밖으로는 늘 흐르며 변화하는 글로벌, 권역별 문화의 변동을 파악하고 함께하고 리드하며 세계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한류 문화컨텐츠를 생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포스트-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 중 하나인 시-문학-예술-철학이 기술과 만나는 공연 콘텐츠로서 그리고 한국적 양식의 고유한 음악극 또는 오페라 양식인 가무악 또는 악가무 장르의 적극적인 개발 필요

아시아적 에콜로지 기반의 연대를 통한 공생-공감-공락(共生-共感-共樂)의 길을 열어가는 한류

함께하는 모든 것들과 대칭적 관계로 바라보는 문화정책

청년, 성소수자, 종교와 비종교, 동물, 식물, 스태프, 출연진, 극장직원, 관객, 정책입안자와 지원자, 청년, 노인, 여성, 남성 등등

## 나로부터의 콘텐츠 모색

즉흥과 시나위축제 : 인간의 신체의 예술적 기교와 직관이 만나 순간적으로 창조하는 ‘즉흥’이라는 키워드는 AI와 대비되며 미래의 모든 예술 장르에서 지금보다 더욱 중요하게 연구되고 다뤄질 것으로 예상. 전통음악에서의 이미 재즈가 다양성 음악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시나위’는 아시아의 유사 양식적 특성과 장르를 포용하고 확장하며 재즈와는 또 다른 제의적이며 자유롭고 영적인 음악으로 피어날 수 있음. ‘예술한류’의 개념에서 중요한 ‘시나위 축제’와 같은 우리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 한국 고유의 종합적이고 전통적 음악극 양식인 가무악 양식의 적극적 개발

포스트-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중 하나인 시-문학-예술-철학이 기술과 만나는 공연 콘텐츠로서 그리고 한국적 양식의 고유한 음악극 또는 오페라 양식인 가무악 또는 악가무 장르의 적극적인 개발 필요

## 새로운 한류 축제와 기존 축제의 리브랜딩 - 역사 문화적 기원

ACCF WMF - 아시아문화전당 원드뮤직페스티벌 리브랜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현재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주최하는 월드뮤직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 페스티벌의 이름을 리브랜딩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페스티벌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 K-Ballet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김용걸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 토론문

K-Ballet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김용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1945년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통해 전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지금 특히 문화예술 방면에서의 발전 역시도 세계인들의 뇌리에 강하게 인식될 만큼 한국인만의 고유한 정서와 뛰어난 예술감각을 장착한 K-Culture 라는 수식어 아래 전 세계인들을 계속해서 매료시키고 있다.

음악과 미술,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한류문화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K-문학이 다시금 재조명 받고 있는 가운데 “백조의 호수”나 “지젤” 그리고 연말이면 반드시 봐야하는 국민발레작품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호두까기 인형” 등 무용의 한 장르 인 “Balllet” 도 근래가 아니더라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있다.

적지 않은 한국의 발레무용수들은 이미 세계무대에서 찬사와 인정을 받으며 K-Culture 의 위상을 떨쳤었는데 그들의 열정과 예술혼은 현재 차세대 주역을 꿈꾸는 한국의 많은 무용전공생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고 있다.

전 슈투트가르트발레단 주역이자 발레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들 라 당스”에서 한국인 첫 수상자였던 현 국립발레단장인 강수진을 비롯 현 “러시아 키로프발레단 주역무용수 김기민”과 “프랑스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에뚜왈 발레리나 박세은” 그리고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주역무용수 서희, 안주원”과 유럽을 대표하는 발레단중 하나인 “네덜란드국립발레단 주역무용수 최영규“ 등 본인이 한예종에 부임하기 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했던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에 겹없이 도전해 솔리스트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선구자와도 같았던 선배들의 피나는 열정과 예술혼 덕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발레단의 공연을 보러 가더라도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한국인 발레무용수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현재에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와 더불어 K-Ballet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의 발레는 세계인들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수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것에는 그 이면이 있듯 한국의 발레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와 같은 그늘진 부분이 존재하는데 바로 체계적으로 무용을 교육시키는 국립기관과 그에 따른 시스템의 부재이다.

자신의 신체로 예술을 표현할 수 밖에 없으며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예술적 수명도 짧은 장르의 특성상 어릴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것이 의무라고 할 만큼 무척이나 중요한데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전세계의 유명 발레단들의 공통점은 모두 그 발레단 산하에 그 발레단의 역사이자 뿌리처럼 존재하는 “발레학교”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한국의 무용교육현실은 장기적인 안목이 아닌 입시나 난무하는 대회에서의 입상에 집중하게만 하는 단기적 목표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속과 뿌리는 항상 위태롭지만 겉은 화려해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나무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세계속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소수의 한국인 발레무용수들이 나올수 있는건 단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시스템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끊임없이 극복해 내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던 몇몇 소수들 덕이라 생각한다.

만약 이 소수들을 재외한다 하더라도 현 한국의 발레수준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레벨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어떤 분야든 어느 정도의 노력과 거기에 윤까지 따라준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어느 선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선 만큼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만큼이며 그 누구에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내 놓으며 자부심을 가질만 한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항상 뒷전으로만 미뤄왔던 역사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수많은 세계 유수의 뛰어난 예술교육시스템들의 재 탐구과 공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통해 실행해 나가보는 시도만이 K-Ballet 나아가 K-Culture의 힘과 가치를 더욱 강화시키고 오랫동안 지속시켜 나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 현실적 대안 제시

### 1. 국립발레(무용)학교 건립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초, 중, 고 과정을 통합하는 교육 커리큘럼의 국립발레(무용)학교 건립 추진(해외 유명 발레학교의 경우 총 6개~12개 학년으로 나눠 한국의 초, 중, 고 교육을 아우른다.)

Ex) 프랑스의 국립발레학교 “Ecole de Danse”의 경우,

- 총 6개 학년
- 9, 10세에 입학 10대 중반 졸업
- 발레 외 문학, 음악, 철학 등 다양한 수업
- 프랑스의 대학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 볼 수 있도록 수업 커리큘럼 구성
- 졸업후 파리오페라발레단 입단이 최선의 목표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공을 활용해 활동함

### 2. 무용전공생들의 병역의무 관련

현 문체부에서 인정한 국제무용대회에서 1, 2위 입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병역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무용을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는 “전도유망한 무용수”들을 소수 정예로 추가로 구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됨

(자신의 신체를 예술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무용의 특성상 현 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자신의 전공을 지속해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 진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허다함.)

## 방안

- 선발 : 문체부에서 제시한 국제대회에서 2위 안에 들지 못해 입상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수한 기량이라 인정받는 소수의 무용수들을 국방부와 병무청의 협의를 통해 그들을 다시 선별할 수 있는 자체적 오디션을 만들어 “소수로 선발”한 뒤 군악대처럼 한두 군데의 부대를 무용특기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대로 지정해 그들이 일주일에 2, 3일 정도 하루 한두 시간씩만이라도 자신의 전공을 연마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

## 그들의 활용 방안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는 발레단들 (와이즈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등)에서 격고있는 공통적인

고초는 남자무용수들의 수급 부족인데 이들을 활용해 1년에 2, 3회 정도 외부에서 개최하는 민간발레 공연에 출연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본다면 그들을 통한 수준 높은 공연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 일반 관객들에게도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남성무용수의 부족부분도 메꾸게 되며 결론적으로는 한국발레는 더욱 탄탄해진 한국무용과 한국발레는 K-Culture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사료됨.